

전북 탄소 소부장 추진단 출범

신원식 정무부지사 “탄소 소부장 단지 세계 3대 거점지역 발전 선제적 지원 나설 것”

27일 서울 포시즌호텔에서 산업부 박진규 차관, 신원식 전북도 정무부지사 등 전국 5개 소부장 특화단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탄소소부장 특화단지’는 2030년 세계 탄소소재융복합 3대 강국을 목표로, 앵커기업인 효성이 오는 2028년까지 1조원 규모 설비를 투자, 10대인을 증설해 연 2만4천톤 생산능력을 확보한다. 또한, 연구개발을 통한 상용화 지원, 소부장단지내 기업 집적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우리나라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갈 탄소섬유,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정밀기계 5대 핵심 소재부품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산업부가 지난 2월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했다.

‘탄소 소부장 육성사업’은 2024년까지 조성목표인 탄소소재국가산단(65만㎡)을 비롯해 친환경첨단복합산단(57만㎡)에 효성첨단소재,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등을 중심으로 2026년까지 탄소융복합 5대 핵심 사업이 추진된다.

5대 핵심 사업은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 R/D, ▲메뉴팩처링 인큐베이션 센터, ▲오피비즈니스 플랫폼, ▲탄소소재 전문인력 양성, ▲통합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등이다.

또한, 전북도 차원에서 탄소 소부장 단지내 입주기업 기술이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뢰성·양산성능평가 지원, 규제특례, 투자촉진, 지적재산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 정부 사업으로 반영해 나갈



27일 서울 포시즌호텔에서 산업부 박진규 차관, 신원식 전북도 정무부지사 등 전국 5개 소부장 특화단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예정이다. 아울러, 탄소소재 융복합산업 발전전략 5대 핵심 수요산업(모빌리티, 에너지·환경, 라이프케어, 방산·우주, 건설)중심 7,000억 원 규모 예타사업도 기획하고 있다.

6대 핵심소재(탄소섬유, 인조흑연, 카본블랙, CNT, 그래핀, 활성탄소) 중심에서 5대 핵심 산업 수요 중심으로 전환하고, 대규모 국가 사업화를 통해 글로벌 밸류체인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기획할 예정이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외부 리스크에 흔들리지 않는 소부장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 지자체, 앵커기업, 연구기관, 대학이 모두 합심해 소부장 특화단지를 성공시켜야 하며, 특히 추진단 구성체 역할 주문”을 강조했다.

신원식 도 정무부지사는 “탄소소재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5대 핵심 소부장 산업으로 인정받고, 국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된다”며 “탄소 소부장 단지가 세계 TOP 3대 거점 지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육성 의지를 밝혔다.

방운혁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은 “산업부 지원계획 확정(단지별 지원내용·규모), 국회단계 예산 확보, 산업부 협자 등 제반 행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향후 세계적 명품 탄소특화단지 육성을 위해 추가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5개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은 올해에는 사업 내용과 규모를 확정해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이며, 한국탄소산업진흥원내 ‘탄소소부장 추진단’은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사업 기획, 인프라 구축, 기업지원, 산학연 네트워킹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신설 전담 조직으로 출범한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인권보호·증진 기본계획 보고·토론회 개최

전북도가 28일 오후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연대와 책임의 포용적 인권도시 전북’을 비전으로 하는 ‘제2차 전북도 인권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안)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도 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 인권전문가, 관계기관 등 20여명이 참여하고, 유튜브 채널 ‘전북 인권공간’을 통해 생중계되며, 댓글 참여를 통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에는 △예방적 인권행정 지원체계 강화, △공공기관 인권경영 기반구축, △사회적약자 맞춤형 인권보장제도 수립, △도민 참여 인권증진 문화 확산 등 4개 정책

목표, 49개 핵심과제가 담겨있다.

특히, 인권전문가 및 시민사회 활동가의 의견을 지문하고, 인권위원회의 회의의를 통해 1차 기본계획의 비전인 ‘존중과 공감의 인권도시 전북’을 한층 강화한 ‘연대와 책임의 포용적 인권도시 전북’이라는 비전으로 49개 핵심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토론회에는 좌장으로 설동훈 전북인권위원장과 기본계획 연구진의 보고, 타시도 기본계획 연구자, 인권전문가 등의 지정토론과 전북도 인권위원 및 기관·단체 인권협의회 위원 등이 참여해 의견을 나누고, 유튜브(전북인권공간 채널)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도, 헬러원데이 대비 방역점검

전북도가 ‘헬러원데이’(10.31)를 앞두고, 젊은층이 밀집하는 주점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에 대한 홍보와 점검 활동을 강화한다.

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인과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음식점(주점) 등을 대상으로 27일부터 31일까지 특별 방역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는 도 건강증진과, 특사경, 시·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4개반 20명의 합동 점검반을 편성했다. 이들은 야간 시간대에 전주 신시가지·전북대, 군산, 익산 등 주요 삼거리 음식점과 주점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내용은 ▲출입자 명부 관리, ▲사적모임 인원 제한,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등이다. /유호상 기자

제14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폐막

태권도시범경연대회 실시간 송출 등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열려

제14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가 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지난 26일 막을 내렸다. 참가자 4,513명, 행사인원 130명 등 모두 4,643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태권도시범경연대회를 실시간으로 송출하면서 전 세계 태권도인의 축제로 발전시켰다.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의 폐막은 화려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행사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 이유도 있었지만 대인접촉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한 이병하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엑스포는 3년 만에 열린 셈이다. 지난 해에는 온라인으로만 개최됐다. 그 직전 해에는 열리지 못

했다. 올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했다. 해외팀들이 무주를 찾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 태권도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이병하 위원장은 “당초 멋있는 대회를 치르고 싶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아쉬움이 많았지만 올해 대회를 기점으로 정상적 대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이 위원장은 “해외참가팀을 오프라인에서 만나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사랑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전라북도과 무주군, 태권도진흥재단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에 큰 어려움 없이 성황리에 잘 마무리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될 경우 기존보다 더 큰 대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며 “당초 엑스포 기간인 7월 정상적인 모습으로 무주에서 전 세계 태권도인과 함께 만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고봉수 부위원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철주야 고생한 임원들을 치하하면서 “미비했던 부분은 보충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겠다”며 “하나 하나 따지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베트남 우호지역 까마우성 주민 계절근로자로 채용

전북도, 27명 내년 3월까지 고창군 9개 농가서 근로... 농촌인력 부족 해소·교류 활성화 기대

전북도가 해외 교류지역의 주민들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해 근로 현장에 투입하면서 도내 농·어촌 인력난 해소는 물론, 실질적 국제교류의 성과를 거두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

도는 고창 선운산 유스호스텔에서 베트남 우호지역인 까마우성 계절근로자 입국 환영행사를 열고 본격적으로 농촌 현장에 투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채용된 계절근로자들은 전라북도 지난 2019년 우호관계를 맺은 베트남 까마우성 지역인으로 총 27명(남 9, 여 18)이다.

이들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자국에서 진단검사 등 관련 절차를 거친 뒤 한국에 입국했으며, 곧바로 고창군 격리시설에서 14일간 자가격리 후 27일자로 격리가 모두 해제됐다.

이들은 내년 3월까지 총 5개월동안 고창군 9개 농가에서 일하게 될 예정이다.

이번 환영행사에서 전북도와 고창군은 계절근로자 27명에게 방한용품과 위생용품 등을 전달하며,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건강과 보살핌을 느끼고, 고국으로 안전하게 귀국하기를 기원하는 도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대신 전했다.

이번에 해외 교류지역 주민들이 계절근로자로 들어온 것은 전북도가 첫 사례다.

국제교류를 통한 양 지역간 상생방안을 찾았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전북도는 고창 선운산 유스호스텔에서 베트남 우호지역인 까마우성 계절근로자 입국 환영행사를 진행했다.

안정적인 계절근로자 수급체널이 구축됐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전북도내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따른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는 전 세계 코로나19 대응행으로 국가 간 이동 제한에 따라 도내 농·어촌근로자 부족 문제가 심화되자 베트남 우호지역에 계절 근로를 제안했다.

실제, 지난 6월 24일 송하진 도지사가 직접 나서 까마우성 레귤인민 위원장군과 온라인 화상 면담을 갖고, 계절 근로 사업에 대해 상호 합의를 도출해냈다.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이같은 합의는 전북도와 까마우성간 두터운

상호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민희 도 대외협력국장은 “전북도의 국제교류를 통한 계절근로자 도입은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류지역이 서로 상생하고 지역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앞으로도 무주, 임실, 부안지역 등 계절 근로 수요가 있는 도내 농촌지역으로 우호지역 주민들의 계절근로자 채용을 확대 추진하는 데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유호상 기자

완주군 공고 제2021 - 1547호

완주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완주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3에 따라 ‘완주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 공청회 개최 목적
 - 완주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내실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함
- 공청회 개최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1. 11. 12.(금) 14:00
 - 장소 : 완주가족문화교육원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462-9)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의 주요내용
 - 과업기간 : 2020. 2. ~ 2022. 1. ○ 목표연도 : 2032년 (2023년 ~ 2032년, 10년)
 - 과업대상 : 완주군 전역(821,08km²)
 - 대상재해 : 하천·내수·사면·토사·바람·가뭄·대설·기타 등 8개 분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 계획안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장소 : 완주군 재난안전과(재해대책팀)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1. 11. 11. 18:00까지
 - 의견제출 : 공고일로부터 2021. 11. 11. 18:00까지 서면제출
 - 제출방법 : 재난안전과 재해대책팀 서면제출 및 이메일(tootle@korea.kr) 송부
- 코로나19 관련 방역사항 사전안내
 - 코로나19 방역대책 이행 및 참석자 명단 작성을 위해 공청회 참석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참석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발열, 호흡기 증상(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권태감, 두통, 근육통 등)이 있을 경우 공청회장 입장이 불가하며, 최근 14일내 수도권 등 지역감염이 확산중인 지역을 여행 하셨거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셨을 경우에도 참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청회장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발열이나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완주군 재난안전과(063-290-2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28일 완주군 수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